

2015. 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5.3.31.	대전MBC 대회의실	7/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성정모, 박희원, 송인덕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9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3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2월
교양	토크프로그램 출연자 진솔한 모습 시청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 옴	토크프로그램 출연자 섭외 진솔한 모습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에게 전달	2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 노인자살 등 노인문제 지속적 관심갖기를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인문제(노인자살) 다룸	2월
기타	홈페이지에 작년에 사용한 ‘창사 50주년’ 수정 필요	홈페이지에 남아있던 ‘창사 50주년’ 삭제 함	2월
보도	보도 기사 중 동의어, 반복어 주의(과반수 이상, 등산가다 등)	동의어, 반복어 기사 방송 나가기 전 재차 확인하여 방송함.	2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 적절한 자막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전달 하기를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자막과 도표 활용 정보 제공함	2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구성의 다변화 필요	토크 프로그램 스튜디오 벗어나 야외 녹화 제작	2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맛집 소개시 특정업체 홍보 안되게	맛집 관련 특정업체 홍보 안 되게 구성과 편집에서 유념하여 제작하고 있음	2월
보도	대전시 도시철도 꾸준한 관심으로 지속적 보도 필요	대전시 도시철도 문제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3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지난 한해 대전MBC는 창사50주년을 맞아 우리지역의 사람과 자연, 문화를 담아내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지역민들을 찾아갔다. 대전MBC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특별 기획 드라마 ‘낮은 기억의 잔해’는 드라마 제작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p> <p>또 지난해에는 특집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 두개 부문에서 한국방송대상 동시 수상이라는 흔치 않은 기쁜 소식을 전. 현직 구성원들에게 안겨 주기도 했다.</p> <p>대전MBC 창사 50주년의 슬로건을 ‘100년 친구 대전MBC’로 정하고 시·청취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 전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력투구한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p> <p>앞으로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투자와 열정으로 지역민들을 찾아 가게 될 지 모르겠다. 환갑을 맞는 10년 후를 기대해야 할 듯싶다. 창사 50주년으로 많은 힘을 쏟았던 지난 한 해와는 달리 올 해는 숨 고르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p> <p>특집 프로그램과 행사 추진으로 잠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라디오와 TV의 정규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와 올해 구성원들의 연이은 퇴직으로 인한 공백 또한 아킬레스건으로 덤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창사 50주년의 후유증이 올 해에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인력과 제작비등의 경영 논리에 밀리면서 로컬 비중이 많이 줄어든 안타까운 실정이고, TV 프로그램들 또한 외주 제작의 증가와 공동 제작 등으로 진정한 대전MBC의 로컬 프로그램들이 그리 많지 않다.</p> <p>이제는 로컬 프로그램들이 한 층 더 자연스럽게, 더 새롭게 지역민들에게 다가 가야 할 때다(김학선).</p>	<p>2015년 대전MBC 프로그램은 내실을 기해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각 코너, 진행자, 세트 등 작은 부분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고, 연출자들의 제작의도가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모니터평가회의, 자체 PD합평회 등 다양한 방법들을 늘려나가고 있다.</p> <p>그리고 특집 프로그램도 TV부분의 <갈릭루트>, 라디오 부분의 <다큐드라마 상록수> 등 새로운 스타일의 기획을 시도하고 있고, 완성도 높은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뛰고 있다.</p> <p>방송사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본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특집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p>이 달 초 오랜 가뭄 끝에 남해안 지역에 봄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그동안의 가뭄이 해소 됐다면서 ‘이번 큰 비에 농민들이 농작물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상대사에서 보도 했다.</p> <p>여기서, 우선 ‘큰 비’가 적합한 표현인 지</p>	<p>뉴스에 올바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노력하겠다. 현재 대전MBC 보도기사의 경우, 데스크에서 맞춤형 기사를 실시해 출고하고 있다. 관용적인 표현의 경우 항상 방송언어로 적합한지 세심하게 살피겠다.</p>	○		

	<p>‘많은 비’가 더 어울릴 듯싶기도 한데, 국어사전에 ‘큰 비’가 ‘오래도록 많이 오는 비’라고 정의돼 있다. 사전적 의미의 ‘크다’는 부피나 길이, 넓이, 높이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수나 양이 많다. 줄기차게 내리 퍼붓는 비인 ‘호우’와는 구별된다. ‘큰 눈’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다. 아주 많이 내린 눈의 ‘대설’은 있다. 또 하나, 위 문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용하고 있는데, 방송 언어 중 표현상의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이 문장은 의미상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말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로 고쳐 써왔다. 그런데, 우리말 사전을 보면, 관용구로 ‘팔을 걷고 나서다. 팔을 걷어붙이다.’가 나온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소매를 걷어붙이다. 팔을 걷어붙이다.’ 이 두 문장 모두 맞는 표현인 셈이지만 방송언어로는 ‘소매를 걷어붙이다.’가 더 적합 할 듯싶다(김학선).</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3월 24일)에서 48년째 하루 두 번, 좁고 가파른 계단 위 종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흥동 성당의 종을 쳐 온 조정형 종치기 할아버지를 소개하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 온 할아버지의 인생관을 들어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변에 따뜻한 귀감이 될 듯싶다. 의미 있는 개인의 삶을 소재로 한 방송이었다. 앞으로 이런 소재를 잘 발굴해 방송해 주었으면 한다. 종을 울릴 때 그 소리가 인근지역까지 널리 퍼질 것이다. 종소리가 널리 나간다는 것을 영상으로 담기위해서는 대흥동 전체의 조망을 표현한 영상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유덕순),</p>	<p>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소재 발굴, 그러한 소재를 통한 훈훈하고 정겨운 사회분위기 조성은 <생방송 아침이 좋다>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기본으로 삼는 부분이다. 48년간 종치기라는 직업을 천분으로 알고 살아온 조정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소리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제작진도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보다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쓰겠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오늘의 날씨를 소개해 주고 있다. 매번 1회 연결하다가 어떤 날은 날씨 연결을 2회로 하기도 한다. 그 날의 날씨 정보가 시청자들이 볼 때 특이한 점이나 시사각각 날씨가 변화가 있기 때문도 아닌 듯싶어 2회 연결이 과연 적절한 지 궁금하다(유덕순).</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1월 26일 개편 이후 프로그램의 서두와 말미에 2회의 일기예보를 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 패턴에 따라, 전반부 혹은 후반부만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개편이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의 반복에 대한 거부감을 덜기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p>	○	

<p>보도</p>	<p>대전에는 대전시티즌 축구팀과 한화이글스 야구팀이 있다. 스포츠가 지역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자못 크다. 지역언론에서도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들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다. 대전MBC도 한화이글스와 대전시티즌 경기를 소개를 한다. 방송 리포트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아직 전문적 시각으로 분석 비평하는 뉴스물이 없는 듯하다. 특정 기자를 스포츠 전문 기자로 육성하거나 캐스터를 전문화하기를 바란다. 보다 고차원적 접근을 한 분석기사를 만나고 싶다. 프랜차이즈 스포츠팀을 애정을 갖고 전문화된 식견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어찌보면 지역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역방송 고유기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주).</p>	<p>지역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뉴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스포츠중계의 경우 특화된 인력이 있지만 전문 스포츠기자는 한정된 인력풀 탓에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포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관련 보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겠다.</p>	<p>○</p>	
<p>교양</p>	<p>이번 주 테마기행 길에서는 ‘전통과 미래의 도시 - 세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의 중심이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p> <p>먼저 대변인이 소개한 세종시에서 편안하게 찾아가볼만한 곳을 찾아가 상세히 설명해주어 시청자들이 가볼만한 장소로 소개되었다. 또한 100년 전통과 역사를 가진 복숭아 하우스 농가를 찾아가 봄이 한 층 더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산자락에 위치한 휴식장소와 죽음을 만드는 곳에서는 방법을 생생히 전해주어 정성스런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향수와 동심이 떠올리게 하는 체험과 어르신들 짙푸른공예는 공을 다해 만들어 전통을 지키는 소일거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따라서 세종시는 살기 좋은 미래를 꿈꾸는 행복마을에서 향기로운이 가득한 세종에서의 봄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p> <p>진행자의 친근하고 편안함이 묻어있는 말투와 적절한 질문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었고 차분한 설명이 덧붙여져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장소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배경음악 볼륨이 다소 커 상대적으로 나레이션이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음향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더욱 원활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덕성).</p>	<p>영상을 좀 더 아름답게 돋보이자는 의도로 삽입된 배경음악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다. 더 세밀하게 노력을 기울여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에 임하겠다.</p>	<p>○</p>	
<p>교양</p>	<p>이번 주 건강플러스는 춘곤증과 허리디스크에 관하여 방송하였다. 먼저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봄의 즐거움</p>	<p><건강플러스>는 50- 60대 이상의 중 장년층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될 수</p>	<p>○</p>	

	<p>을 만끽하는 요즘 춘곤증으로 인한 고통도 함께 찾아오는데 춘곤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달래, 딸기, 조기가 해답이라고 한다. 먼저 한의사의 전문적인 인터뷰를 통해 춘곤증의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주재료로 하는 요리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요리법을 소개하는 중간에 조리학과 교수가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p> <p>허리디스크에 관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진행자의 질문형식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을 사례자료와 영상을 통해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궁금증 풀어주었다. 또한 진행자의 질문은 실제로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적절하였으며, 전문의의 적절하고 자세한 대답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오덕성)</p>	<p>있도록 보다 더 충실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p> <p>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은 <맛있는 처방전>코너는 다채롭게 구성을 하였고, 한 가지 주제로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는 <TV주치의>는 보다 더 쉽게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p> <p>허리 디스크편은 현재 대전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디스크 전문의와 디스크 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과 모형 등으로 지루함을 덜고, 흥미있게 시청할 수 도록 구성을 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p>		
교양	<p>3월 22일 방영한 '전국이 보인다' 편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대전미술의 지평, 김동유 展 전시회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자 뒷편 좌측으로 박정희 인물작품, 우측으로 김일성 인물작품을 배경으로 구도를 잡고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클로즈업하면서 그날의 프로그램 방영을 시작하였다.</p> <p>또한 프로그램 방영 시작시 사회자 뒷 배경으로 나온 화면을 보고 그날 방송될 프로그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개의 시청자의 경우 연관해 생각하기도 하며 특히 우리 현대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박정희, 김일성 두 인물을 감안한다면 그날 방영 될 프로그램과 연관해 볼 수 있다고 본다.</p> <p>그러나 이날 방영된 프로그램은 두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다만 종영시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김동유 展을 배경을 한 것이었다면 방송 도입부보다 방송 중영 부분에 그 배경으로 삼아 소개하였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p> <p>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대전MBC가 되어 주길 바란다. (장백기)</p>	<p><전국이 보인다>는 특정 세트를 두지 않고, 미술관등의 색깔 있는 장소를 섭외해 매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p> <p>3월 22일 방송분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제작되었는데, 배경그림 중의 일부분이 그림이 가지는 상징성이 두드러져 소개했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p> <p>김동유 화백은 대전 출신으로 근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명작가이기도 해서,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주기위해 배경으로 선택했다.</p> <p>제작 시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접근하여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교양</p>	<p>테마기행 길에서는 ‘전통과 미래의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세종시에 대해 방영하였다. 세종시는 국책사업으로 신설되는 행정도시로서 주변 지역의 오랜 전통의 시골풍경이 함께 하는 지역이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다.</p> <p>도입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대변인의 설명으로 책을 펼친 모습이라는 세종도서관,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 등 신도시의 명물에 대한 소개와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시 전경 등을 통해 행복도시의 개요를 잘 소개했다. 이어서 연동면의 하우스 복숭아 농사, 장군면 영평사의 죽염제조, 전동면 청솔마을의 녹색체험으로 두부만들기, 짬뽕 전통공예 등 오랜 전통을 찾아보고, 교과서박물관의 6~70년대 역사 자료 등 유익한 내용으로 편집하였다.</p> <p>이렇듯 전체적으로는 유익한 내용이었으나, 한 두가지 보완할 점을 제시한다면 우선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내용보다는 좋은 여행길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흐름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진행자(리포터)도 혼자가 아니라 게스트를 초대하여 남녀 2인으로 하면 여행길이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이와 비교하여 2/24 방영된 전주 mbc의 ‘그 겨울의 순창’ 편은 두명의 진행자가 출발 장면부터 메타세콰이어 길, 걸어가는 낙엽길 등을 보여주는 내용과 자료화면, 만화 삽입 등은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편집이었다. (김명수)</p>	<p>테마기행은 이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 사람, 특산물에 대한 자연스런 소개를 위한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이다.</p> <p>따라서 유익한 내용과 재미를 함께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p> <p>보다 풍성한 진행과 구성으로 우리지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p>프로그램 구성(진행자 수 등)은 좀 더 고민을 하겠다.</p>	<p>○</p>	
<p>보도</p>	<p>지난 3월 19일, 대전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용돈벌고 보람얻고.. 맞춤형 일자리’로 소개한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 또한 이날 보도에서는 전통생활방식을 시연하는 어르신, 동화구연을 들려주는 어르신, 마술사로 변신한 어르신 등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노인 눈높이에 맞는 더 많은 일자리 및 노인들이 인생 제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보장이 시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p> <p>그리고 이날 보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 9시간 월 36시간의 근로에 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정부 시책 사업이다.</p>	<p>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전MBC도 이에 걸맞은 보도물을 확대하고 있다. 실례로 ‘인생2막’ 기획보도와 노인일자리 관련 연속보도가 있었다.</p> <p>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에서 노인 관련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p>	<p>○</p>	

	<p>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20만원은 많은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p> <p>또한 이날 보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흔한 교통지도나 환경청소 일자리를 벗어나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여러 참여 형태를 보여주고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했다고 보여 지나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의 한가지 사례 정도도 곁들여 보도하였음 더욱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장백기).</p>			
<p>보도</p>	<p>3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두건의 뉴스를 톱뉴스로 다룸으로 과학도시의 중심방송 역할을 수행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3A호 발사 준비상황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했으며, 세계과학정상회의 유치 성공과 관련해 고급호텔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사이언스컴플렉스의 일부를 호텔시설로 해야 한다는 인터뷰는 추진현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인다.</p> <p>이어진 3월 26일에도 아리랑3A호의 성공 소식을 VIP가 참석한 천안함 5주기 행사보다 먼저 다루어 타 방송에 비해 대국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수)</p>	<p>대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중심도시이다. 대전MBC 뉴스도 지역과 밀접한 사안을 우선 배치해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매진하겠다.</p>	<p>○</p>	
<p>보도</p>	<p>3월 7일 시사광장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논의와 충청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충청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이의 개선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 후 바로 시의성 있는 토론 주제를 다루었고, 패널 구성도 지역 여야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선정이 굉장히 적절하였다.</p> <p>헌법재판소의 지역구 현황에 대한 표의 등가성 재고 결정 이후, 이번 토론방송을 통해 각 지역(대전, 광주, 울산)의 인구대비 의원 수 현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정개특위의 구성과 역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선거구 획정위 구성,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에 대한 양당의 입장과 전망 등 토론 내용에 흥미를 갖고 시청했다. 진행되고 있는 토론 주제에 대해 자막을 통해 소개한 것도 시청자의 관심을 높이는</p>	<p>시사광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한 현안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진행 중인 토론의 주제를 정리해 보여주는 자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p>	<p>○</p>	

	<p>데 도움이 되는 제작이므로, 향후에도 몇 개의 주제를 갖고 진행하면서 자막 편집 활용을 추천한다. 가능하다면 중간에 도표 등을 통한 설명을 추가하면 더욱 시청자의 이해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김명수).</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는 3월 13일 방송에 공주 새들목 논란에 대해 방영하였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문제를 집어 이슈화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새들목에는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는데 작년 가설도로가 설치되고 낚시꾼들이 드나들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난무하는 모습, 가시박 나무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들까지 다 뽑아놓은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담아내어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생태계 파괴를 실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30만㎡의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있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일부 공주시 의원들이 쓰레기가 많고 쥐들이 산다는 이유로 새들목의 준설을 요구했고 상류쪽 절반 정도를 잃고 그나마 나머지 절반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공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어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소실된 새들목의 공중파 모습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줌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p> <p>하천법 44조에 따른 일반보전지구와 친수거점지구의 뜻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히 뜻만 나열하여 보여주는 것보다 일반보전지구와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된 섬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반보전지구 하천과 친수거점지구 하천을 예시를 들어 비교설명 해주었다 라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왜 새들목이 개발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찬희)</p>	<p>3월 13일 방송된 <시사플러스- 공주 새들목 개발 논란>편은 잘못된 개발의 실태와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다룬 프로그램이다.</p> <p>프로그램의 중심 부분의 일반보전지구와 친수거점지구의 문제는 담당PD의 스튜디오 멘트와 촬영영상과 그래픽을 사용하여 전달했지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분량과 설명을 가감해야하는가 하는 것은 연출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p> <p>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새들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간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보전지구와 친수거점지구에 대한 비교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진 것으로 파악된다.</p> <p>프로그램 후반부의 서울, 방성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태적으로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모범 사례로 언급하였다.</p>	<p>○</p>	
<p>교양</p>	<p>3월 21일 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패션큐레이터 김흥기씨가 출연했다. 시청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직업인 “패션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국내1호 패션큐레이터 김흥기씨를 모셔 그의 강의와 일상을 시청자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패션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는 패션을 시로 비유하고 복식의 역사를 통해 패션을 새롭게 풀어내었다. 시청자들의 궁금할 만한 것들을 메인MC들의 준비된 대리 질문을 통해 궁</p>	<p><허참의 토크&조이>는 유명인사와 더불어 각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초대손님으로 출연시키고 있다.</p> <p>패션큐레이터 김흥기씨는 패션을 단순한 복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패션의 역사를 살펴봄에 이를 통해서 패션과 사회와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있다.</p> <p>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흥미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p>	<p>○</p>	

	<p>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 되었고 패션에 대해 옷이 단순한 직물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때로는 계층을 나타내기도 하는 수단이 되고 때로는 자아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 꾸준히 있어왔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강의가 되었다. 패션이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많은 연구조사를 하고 언론매체에 패션을 저널하는 사람이자 패션전시, 기획을 하고 신인디자이너와 만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삶인 패션큐레이터의 직업에 대해 조명하고 소개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다. (한찬희)</p>				
--	---	--	--	--	--